### 광주·전남 부동산개발회사 연합-신협-신탁사 업무 협약

# 지역 부동산개발 쉽고 빨라진다

#### 정보 공유·금융 지원 … 건설업계 동반성장 기대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개발회사와 금 융사, 신탁사가 한데 뭉쳐 상생의 길을 열 어간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시도된 금 융 및 신탁사와의 3자 협약으로 지역 건설 업계는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역 18개 부동산개발회사 연합체인 '거 목회'(대표 정기섭)는 지난 17일 광주 금수 장 호텔에서 광주지역 신용협동조합 연 합, 국제자산신탁과 공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부동산개발사업의 발전과 진흥을 함께 꾀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 면 부동산개발 연합은 신규 부동산 개발사 업시 신용협동조합(신협) 및 신탁사와 정 보를 나누고, 신협과 신탁사는 금융자문 및 사업에 협조하는 식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의 부동산개발 회사는 사업 진행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소 개발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업 진행을 위한 PF(대규모 기획대출) 대출이 필요해도 1금융권에서는 PF를 일으키기가 힘들었던데다 호남권 신탁사의 부재로 사업을 위해서는 서울 방문이 필수였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개발사의 PF 대출에 광주지역 8개 신협이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 지 난 3월 호남권에 최초로 지점을 개설한 국 제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사의 신탁업무 를 협조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3000㎡ 이상의 토지를 선분양하려면 신탁사에 신 탁을 맡겨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정기섭(고운시티아이 회장) 부동산 개 발회사 연합 대표는 "1금융권의 경우 대 출을 받으려면 과도한 금리와 복잡한 일 처리로 인해 부동산 회사들이 때를 놓쳐 사업을 포기해야 하던 경우가 적지 않았 다"며 "이번 협약으로 18개 지역 개발사 는 한결 발빠른 금융 지원과 신탁업무를 협조받을 수 있게 돼 업무 진행이 훨씬 수 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현봉 국제자산신탁 호남센터장은 "11개의 국내 신탁사 가운데 그동안 호남 권에 지점을 갖춘 곳이 전무했는데, 거목 회의 제안을 듣고 광주에 호남권 센터를 최근 개소하게 됐다"며 "서울을 방문해야 만 가능하던 일처리가 지역에서 곧바로 진 행될 수 있어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지역 부동산 회사의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지역 18개 부동산개발회사 연합체인 '거목회'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금수장호텔에서 광주지역 신용협동조합 연합·국제자산신탁과 신규 부동산 개발사업때 금융자문 및 사업협조를 위한 공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명주기자 mjna@

#### 협약 참여 업체

◇광주·전남 부동산개발회사 연합
▲고운시티아이㈜(대표 정기섭) ▲대라 종합건설㈜(대표 오동식) ▲㈜더프라임개 발(대표 이현철) ▲㈜지인C&C(대표 권혁 진) ▲국제건설㈜(대표 김명기) ▲㈜태호 건설(대표 김영주) ▲㈜신풍(대표 김인수) ▲향원주택㈜(대표 남석곤) ▲DY건설㈜(대표 문재휴) ▲세원종합건설㈜(대표 백민수) ▲브이종합건설㈜(대표 송용욱) ▲㈜한국친환경건설(대표 송창영) ▲㈜프라

임글로벌(대표 윤우성) ▲㈜지앤지종합건설(대표 윤원식) ▲㈜씨에스건설(대표 이 병곤) ▲삼일건설㈜(대표 최갑열) ▲국토 건설㈜(대표 황성호) ▲미래종합건설㈜ (대표 한지훈)

◇신용협동조합 연합

▲삼애신협(이사장 김성운) ▲방림신협 (이사장 정기수) ▲신우신협(이사장 박경 옥) ▲웨슬리신협(이사장 윤재영) ▲남광 주신협(이사장 김인석) ▲샘신협(이사장 채선필) ▲우리신협(이사장 서종완) ▲중 흥신협(이사장 이정곤)

# 국민연금 '실버론' 인기몰이

#### 3년간 빌려준 자금 1000억 넘어

국민연금공단이 만 60세 이상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전·월세 등 노후 긴급자금으로 빌려준 돈이 1000억원을 넘 었다. 국민연금 대출 프로그램인 이른바 '실버론' 사업 시행 3년 만이다.

일 지원 시행 3년 반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년 5 월 도입한 국민연금 실버론을 통해 약 3년 간 노후긴급자금을 빌려간 수급자와 금액 은 지난 3월말 기준 총 2만6080명에 1017 억원에 달했다. 1일 평균 대부금액은 1억 1000만원이었다. 빌린 돈을 갚은 비율(대 부금 상환율)은 99.6%로 다른 서민금융보다 높다.

이처럼 실버론이 인기있는 것은 빠른 대 출과 낮은 이자 덕분이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 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연이율 3%)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 르디 에 는 서면 B S서 답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내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서 '삼성증권 호남포럼'

삼성증권 호남사업부(호남권역장 김태현 상무)가 주최하는 제4회 삼성증권 호남 포럼이 22일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 1부에서는 박소영 한국핀테 크포럼 의장이 '핀테크(Fintech), 금융산 업을 뛰어넘다'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 는 장석환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이 '중 국 금융시장 전망 및 중국본토 Growth Wrap'에 대해 강연한다. 참석을 원하는 이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삼성증권 고객 이 아니라도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062-380-1588.

r다. 군의 002-360-1366.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6.71 (+3.21)

금리 (국고채 3년) 1.69%

▲ 코스닥 706.96 (+0.06)

▼ 환율 (USD) 1079.20원 (-4.50)

## 보해, 17.5도 소주 나왔다

### 신기술 적용 부드러운 맛 살려 도수낮춘 '잎새주 부라더' 출시

보해양조(대표이사 유철근)가 잎새주의 알코올 도수를 낮춘 신제품 '잎새주부라더'를 20일 출시했다.

보해양조의 '잎새주'는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 소주 브랜드로, 지역 소비자들의 저도화 소주 제품 요구에 맞춰 17.5도의 '잎새주 부라더'를 새롭게 선보였다.

'잎새주 부라더'는 기존 잎새주보다 알코올 도수를 1.5도 낮췄으며 호남지역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와 다양한 공법 을 적용하는 등 제조 과정부터 심혈을 기울였다. 특허받은 고품질 증류원액 제 조 공법과 보해 종합기술원에서 개발한 MAPBS(Micro Air Pocket Blowing System) 기술을 적용했다.

소비자 기호에 맞춰 향미를 조절해 소 주의 품질을 높이고 소주에 포함된 숙취 물질과 잡내를 최소화해 깔끔함과 부드 러운 맛을 되살렸다.

제품 원수도 노령산맥에 위치한 장성 군 장성읍 영천리의 지하 253m 청정 석 간수(바위틈에서 나오는 샘물)를 사용 했다. 여기에 천연식물인 스테비아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와 식물성 단백질인 토마 틴을 함유했다. 또 고 급 보드카에 사용되는 최고 품질의 네덜란드 산 활성탄으로 정제해 깨끗함을 더했다.

보해양조는 신제품 '잎새주 부라더'의 알 코올 도수 인하로 인한 원가 절감 비용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일 사 다

보해양조의 한 관계자는 "신제품 '잎 새주 부라더'는 기존 '잎새주' 제품의 동 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며 "지난 60 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해양조와 호 남 지역민들이 함께 성장해 형제처럼 깊 은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뜻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높은 도수의 술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기존 '잎새주' 19도 제품과 저도수 소주인 '아홉시반'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제품 출시에 맞춰 소비자들과 다양한 스토리를 함께 만드는 '부라더 캠페인'도 선보일 예정이다. '잎새주 부라더'의 용량은 360ml, 출고가는 962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 진곡산단 공장용지 98필지 공급

#### 분양가격 m'당 27만5967원

광주도시공사는 20일 "광주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진곡일반산업단지의 공

장용지 %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되는 공장용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 분양을 보류한 72필지와미분양 용지 26필지이다. 필지당 면적은 1663㎡에서 2만9735㎡이며 분양가격은㎡당 27만5967원이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 보류한 72필지는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소형 필지가 많다. 용지분양 신청은 공고문에 안내된 관련 서류를 갖춰 다음달 7~8일 도시공사 1층 고객행복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입주계약 신청은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 홈페이지 (http://minwon.in→ nopolis.or.kr) 접수처에 신청하면 된 다. 도시공사는 입주 심사를 걸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분양계약은 다음달 19일부터 공사 1층 고객행복센터에서 할 계획이다.

분양대금 납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토지 사용시기는 필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빠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가능하다.

광주시 광산구 진곡동에 위치한 진곡 산업단지는 하남공단, 첨단산업단지, 평 동공단 등이 인접해 있다.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진곡산단 진입도로, 하남산단 진 입도로가 있어 접근성이 좋고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광주도시공 사는 진곡산업단지를 환경 친화적인 산 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업종별 분양면 적을 제한해 공급해 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홈 페이지(www.gmcc.co.kr) 공고란을 참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분양보상팀 (600-666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마약 옥수수' 인기 20일 광주신세계 지하1층 식품관에서 옥수수를 생크림 과 버터, 마요네즈에 버무린 소스와 함께 먹는 일명 '마약 옥수수'를 선보였다. 마약 옥수수는 서울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먹거리로 개당 3000원에 팔리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